



대학교육의 현실과 대학 행정 서비스의 개선

심창수 | 경상대 대학원 학생회장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은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 하였으나 질적 발전은 아직 미흡하여 충분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웅장한 캠퍼스와 거대한 도서관, 수많은 대학생,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을 등 다른 선진국가의 대학과 비교하여 하등의 손색이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 내부까지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대학은 비참하리만큼 황폐화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우리의 대학은 갖가지 내·외적 갈등에 휩싸여 방향감각을 잃은 채 비틀거리고 있으며, 비학구적인 면학 풍토와 반지성주의적 풍조 하에서 대학의 지적 창조력은 크게 퇴조되어 있다.

일단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공부하지 않아도 쉽게 졸업할 수 있으며, 연구하지 않아도 평생 대학에 몸담을 수 있다는 풍토가 만연하여 대학의 본질적 기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공부 안 하는 교수에,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 우리나라 대학의 특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연구실과 세미나실, 도서관의 불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공부 안 하는 대학의 풍토는 열악한 물리적 환경 때문일 수도 있다. 열악한 면학 여건과 연구 여건이 학생과 교수들을 나태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대학은 만능적인 국가 통제와 간섭에 길들여 있어 쉽게 자율적 통제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여전히 국가의 대학에 대한 보이지 않는 통제와 간섭은 계속되고 있어, 자율과 자치를 갈구하는 대학인들의 욕구는 간혹 정부와 심한 대립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대학은 '자유롭지 못한 대학'의 표상이기도 하다. 학생들의 지나친 자기 확신과 현실 참여, 기성 세대에 대한 불신으로 교수들의 도덕적 감화력과 교권이 심히 위축되어 있기도 하다.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 욕구가 일시에 폭발하여 대학의 의사결정 기능이 자주 마비되기도 한다. 결국 대학은 외부의 통제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학 스스로도 아직 자율과 자치를 누릴 만한 충분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도 못하다. 그 결과 대학에 대한 외부의 통제와 대학이 갈구하는 내적 자율의 욕구간에 갈등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오늘날 대학이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사회나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가정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기업의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이면서 정부의 문제이

“

교육인적자원부나 학교 당국은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실험할 뿐 제도 시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수정하는 데에는 너무 인색한 것 같다.
무조건 제도를 만들어서 전국 대학교에 적용시키기보다는
특정 대학교에 먼저 시행해 본 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수정한 다음에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며, 나아가 국가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181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해 펴낸 『대학 학사행정 우수사례집』에는 영어,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일정 기준에 미달한 학생을 졸업시키지 않는 제도 등 교육 수요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각 대학이 도입한 정책들이 소개되었다. 사례집에는 이밖에 봉사활동 학점인정제, 다양한 복수전공제, 해외 인턴제, 수업평가제, 대학 행정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학사행정 우수 사례 55가지가 실렸다. 필자가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와 비교해 보면 수많은 제도들이 생겨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나 학교 당국은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실험할 뿐 제도 시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수정하는 데에는 너무 인색한 것 같다. 제약회사가 새로운 약을 만들어서 환자에게 사용하기까지는 수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교육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제도를 만들어서 전국 대학교에 적용시키기보다는 특정 대학교에 먼저 시행해 본 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수정한 다음에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 가운데 학부제에 대

해서 좀더 깊이 이야기 하고자 한다.

필자가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을 하여 '학부제'라는 것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다. 언론에서 말하듯 "학부제란 여러 개의 전공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택할 수 있는 것" 정도의 좋은 것으로 생각했었던 나는 내심 신입생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지금 학생들과 이야기 해 보면 학부제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우리나라 대학의 학교 생활은 연구중심이라기 보다는 인간관계중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부제는 지금까지 내려왔던 인간관계 중심의 대학문화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대학에 '학부제'가 도입되면서 캠퍼스에는 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풍경들이 등장하고 있다. 학부제란 학문적 관련이 있는 2개 이상 학과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체계로, 신입생 모집도 종전처럼 학과 단위가 아닌 여러 학과를 묶은 계열 단위로 한다. 전공학과가 정해지지 않은 신입생들은 '반'으로 묶인다. 생소한 '반'이 등장하자 변화도 생겼다. '과대표' 대신 '반장'이 생겨나고 '반팅'이라는 새로운 용어도 떠올랐다.

학부제 도입 이후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신입생들의 '향학열'이 비정상하게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1

년, 혹은 2년 뒤 선호하는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신입생들은 1·2학년 시절에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1학년 때 받은 학점이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원하는 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부제 신입생들에게 붙은 별칭이 바로 '고교 4학년생'. 그 때문에 대학 도서관은 온통 '4학년들' 차지가 돼 버렸다. 취업을 위해 공부하는 '대학 4학년생', 학점을 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고교 4학년생'으로 말이다. 두 종류 '4학년들'의 학업열 때문에 다른 학년 학생들은 도서관에 발 디딜 엄두도 못 낸다.

학부로 함께 묶여 있기에 타학과 개론 강의를 필수로 들어야 하는 신입생들 사이에 돌고 있는 자조적 유행어는 '지식이 파전이다'라는 말. 지식을 두루 쌓는 것은 좋지만 모두 수박 겉핥기식이라 결국 '넓지만 얇은 파전 같은 부침개' 꼴이라는 뜻이다. 여러 분야에 걸친 필수개론 과목에서 두루 고득점을 얻기 위해 새로운 '학점따기 전략'도 등장했다. 해당 학과 선배들로부터 '죽보'와 '시험 노하우'를 얻어내기 위해 각과의 성적이 우수한 선배들을 찾아다니며 시험정보를 빼내 학점관리에 성공하면 막상 2학년에 올라간 후에는 도와줬던 선배들을 나몰라라 외면하고 자기가 진짜 원하는 학과로 가 버린다고 한다.

1학년 때 학부제를 실시하고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 학교에서는 1학년을 마치고 전공 학과가 결정되자마자 휴학을 하는 남학생들이 부쩍 늘고 있다. 학부제 실시 이전에 군입대를 위해 2학년을 마치고 휴학하는 남학생이 많았던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과'가 아닌 '반'으로 묶이면서 같은 과 동기, 선·후배 사이도 눈에 띄게 멀어졌다. 선배들로서는 '앞으로 누가 진짜 내 과후배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학부 후배들에게 밥 한끼 사 주는 것도 인

색해졌다. 신입생들도 입학부터 졸업까지 4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하던 이전의 대학 동기들에 비해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뿔뿔이 흩어질 '반 친구'들과 돈독한 우정을 나눌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소속감이 없으니 과 단위로 떠나는 MT도 시들해져서 일부 학과에서는 MT에 가겠다는 희망자가 너무 적어 계획했던 MT가 취소되기도 한다.

학부제가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학부제는 대학생활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좀더 나은 학부제가 될 수 있도록 이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노력해야 한다.

대학의 개방화와 국제화라는 명분으로 학교마다 앞다투어 외국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학생들을 유치만 할 뿐 체계적인 교육방안을 세우지 않아서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외국인 유학생회'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학교에 건의도 하고 한 목소리를 내 보기도 하지만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 물론 유학 오는 학생들 대부분이 중국이나 인도 등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유학생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유학을 준비하거나 다녀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도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확실한 원칙과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그 나라의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중요하다. 물론 영어는 기본으로 해야 한다. 유학을 가면 일정 기간 언어 연수 과정을 거치고, 모자라면 전담 과외를 받아서 일단 언어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되면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간다. 어찌면 그것은 상식이다.

“

이제 대학이야말로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학을 가장 잘 평가하는 이는 학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정책을 이끌어가는

최소한의 기능만 하고, 정책적인 것은

모두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한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학생에 관한 정책은 원칙도 없고 관심도 없어 보인다. 일단 외국 학생을 받고 장학금을 주고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하면 모든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그들이 어떻게 수업을 받고 학교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이나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길돌고 있지만 그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하루빨리 외국인 학생들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정확한 원칙을 만들어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대학의 자율화’는 역대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었던 말이다. 그런데 대학은 아직도 ‘자율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오랫동안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통제의 관행이 잔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 대학들이 ‘자율’을 잘못 행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제 대학이야말로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학을 가장 잘 평가하는 이는 학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정책을 이끌어가는 최소한의 기능만

하고, 정책적인 것은 모두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한다. 모든 대학들이 현재와 같이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간다면 머지않아 많은 대학들은 스스로 도태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대학 내부의 권위적인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대학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대고는 ‘자율화’를 외치면서 대학 내부에는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적이며, 비민주적인 요소를 가득 안고 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대학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대학의 학점체제와 권위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대학 행정의 책임과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최하 단위인 학과 또는 학부 등에 많은 책임과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

정부가 의도하는 대학의 특성화도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학과 또는 학부 단위에서 발전하고, 이것들이 모여져서 전체 대학의 발전을 이루는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의 의사결정 채널을 다원화하고 교수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교수들이 대학 발전에 관심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 발전만을 꾀한다면 그 대학은 발전할 수 없다. **김영**